

# 『역중일기』를 통해본 조선후기의 향약과 마을공동체 운영

조 정 현\*

- I. 서론
- II. 문중의 정착에서 마을공동체 경영으로 확대
- III. 역중일기를 통해본 조선후기 향약의 실상
- IV. 마을공동체 운영의 전통과 변화양상
- V. 결론

## 국문초록

『역중일기(曆中日記)』는 백불암(百弗庵) 최흥원(崔興遠, 1705~1786)이 1727년부터 1786년까지 약 60년 동안 기록한 전형적인 생활일기이다. 이 일기에는 하루의 간지와 일기 상태를 비롯하여 농사 형편, 교유 관계, 유람 일정, 질병과 이를 대처하는 자세, 사회적 모순과 부조리에 대한 반성적 표출, 부인동 향약, 종중의 대소사 등 조선후기 사대부의 일상사가 사실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역중일기』를 통해 부인동 향약이 문중의 규범으로부터 시작되었다가 확대재생산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마을공동체에서 향약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구현되었는지 밝히고자 하며,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향약 운영의 현재까지의 변화양상과 영향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 한국국학진흥원 연구부 국학연구팀 / folkcho@hanmail.net

최홍원이 기획하고 실행한 향약은 역사적인 면에서나 문화사적 측면에서도 기존의 규약만 전하는 것에 비해 유의미한 진전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홍원이 1738년(영조14)부터 부인동에서 실시한 향약은 그의 실천적 학문을 구체화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같은 향약을 범부의 효도와는 다른 대효(大孝)의 실천으로 이해하기도 하였고, 인의(仁義)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당시 사회는 개혁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었고 가장 절실한 변화는 민생에 있었음을 최홍원은 울곧게 인식하고 실천하였던 셈이다.

부재지주이자 향약의 기획자였던 최홍원은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부인동 향약을 운영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역중일기』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부인동 향약의 특징적인 부분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향약 운영과 관련하여 구두로 지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반드시 문서로 남겨 기록하고 공식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는 사실, 둘째, 마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과 관청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했고 관아와 긴밀하게 연동하여 운영했다는 사실, 셋째, 향약의 임원에 대한 세심한 관리를 통해 부인동 향약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했다는 사실, 넷째, 향약의 기획자이자 실행자로서 최홍원에 대한 존모와 원망의 중의적 감성, 신분질서 및 체제 유지와 주민에게 내면화된 대동사회의 이상 간의 모순적 인식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 주제어

백불암 최홍원, 『역중일기』, 부인동, 향약, 동약, 원격경영, 마을공동체

## I. 서론

향약은 조선 사회의 이상과 현실이 명문화된 규약과 구체적인 실상으로 교차하는 상징적 사건이다. 하지만 당시의 향약은 대체로 그 조목만을 전해 줄 뿐 실제로 어느 정도 실시되었는지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부인동(夫仁洞) 향약의 경우, 경제적 기반 조성 등 독특한 제도와 결부되어 실시되었고, 또한 당시의 지식인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조선후기 마을 단위 향약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게다가 향약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역중일기(曆中日記)』가 남아있기에 조선후기 향약의 실상에 보다 근접하여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 연구는 백불암(百弗庵) 최흥원(崔興遠, 1705~1786)의 『역중일기』에 나타난 향약과 대동사회의 실현 양상을, 한 마을공동체의 21세기 현재 변화양상까지 현지조사와 병행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조선후기 대구지역의 한 유학자가 꿈꾼 이상 사회가 실험적 제도로서 향약을 바탕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변화해 왔는지를 밝히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역중일기』는 최흥원이 1727년부터 1786년까지 약 60년 동안 기록한 전형적인 생활 일기이다. 이 일기에는 하루의 간지와 일기 상태를 비롯하여 농사 형편, 교유 관계, 유람 일정, 질병과 이를 대처하는 자세, 사회적 모순과 부조리에 대한 반성적 표출, 부인동 향약, 중종의 대소사 등 조선후기 사대부의 일상사가 사실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역중일기』는 방대한 기간과 분량, 그리고 당시 대구지역을 비롯하여 영남 향촌사회에서 지명도가 높은 인물이 기록한 일기임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했고 최근 들어서야 소개되었다.<sup>1)</sup> 부인동 향약에 대해서는 향촌사회의 향권이나 계급간 조정의 맥락에서 접근한 연구,<sup>2)</sup> 사회

1) 오용원, 「崔興遠의 『曆中日記』를 통해 본 영남선비의 일상」, 『대동한문학』 45, 대동한문화회, 2015.

2) 金仁杰, 「조선후기 향권의 추이와 지배층동향」, 『한국문화』 2,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981; 鄭震英, 「朝鮮後期 鄉約의 一研究-夫仁洞 洞約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

변동에 저항하는 체제유지 도구로서 향약에 접근한 연구,<sup>3)</sup> 최홍원의 학문과 그 실천방법으로서 향약의 성격에 접근한 연구,<sup>4)</sup> 향촌의 규범적 성격에 접근한 연구<sup>5)</sup> 등 여러 연구성과가 있지만, 이를 이 일기와 연동해서 살펴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형편이다. 또한 기존 『백불암문집』과 고문서 등을 통해 연구된 성과에서는 대부분 향약이 유교사회에서의 체제유지를 위한 향촌조직이라는 관점이 유지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역중일기』에는 향약의 시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적인 서술이 이루어져 있으므로 향촌지배층으로서 유림의 조치에 대한 일반 동민들의 대응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향약의 시행자와 이에 영향 받은 일반 민초들이 어떠한 상호작용을 이루어왔는지를 고찰함으로써 이전에 파악하기 어려웠던 하층민의 적응 내지 대응의 양상을 함께 읽어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역중일기』를 통해 부인동 향약이 문중의 규범으로부터 시작되었다가 확대재생산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마을공동체에서 향약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구현되었는지 밝히고자 하며,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향약 운영의 현재까지의 변화양상과 영향을 고찰한다.

따라서 『역중일기』의 세부적인 텍스트를 통해 부인동 향약의 구체적인 양상과 변화 등을 온전히 고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결국 이 연구는 『역중일기』 자료를 토대로 특정 마을공동체에서 향약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이러한 전통이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과연 조선후기의 향약이 농민과 마을공동

---

총』 2.3합집,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1982.

- 3) 김용섭, 「조선후기의 대구 부인동동약과 사회문제」, 『동방학지』 46,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5.
- 4) 정진영, 「백불암 최홍원의 학문과 향약」, 『한국의 철학』 29, 경북대 퇴계학연구소, 2001 ; 이재철, 「백불암 최홍원의 시대와 그의 현실대응」, 『한국의 철학』 29, 경북대 퇴계학연구소, 2001 ; 장운수, 「百弗庵 崔興遠 가문의 學風과 실천지향의 삶」, 『한국학논집』 58,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2015.
- 5) 최인돈, 「백불암의 <부인동동약>과 관련된 향촌 규범에 대한 연구」, 『동북아 문화연구』 23,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0.

체의 자치조직으로서 위상과 기능을 확보했는지, 아니면 재지사족의 효과적 인 지배도구로 실험되고 기능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II. 문중의 정착에서 마을공동체 경영으로 확대

최홍원은 대산(大山) 이상정(李象靖, 1711~1781)과 남야(南野) 박순경(朴遜慶, 1713~1782)과 더불어 영남삼로(嶺南三老)로 불리면서 영남지역에서 일정부분의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과거(科擧) 시험만을 위한 글공부와, 실생활과 동떨어진 토론을 위한 지식을 비판하였으며, 거경(居敬)과 실천의 학문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정계의 진출보다 오히려 향촌의 자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에서 최홍원이 그 나름의 출처관(出處觀)을 가지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최홍원은 향촌사회와 가문의 유교적 이상향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상의 삶을 유교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좋은 법도를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경주최씨 문중에서는 추상적 관념적 이념보다는 실학(實學)이라고 일컬을 만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차원에서 모든 규범이 만들어졌고 전승되어 왔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실시되었던 부인동 향약은 국가적으로 개혁이 절실히 필요했던 18세기 당시 지식인들에게는 주요 관심사 중에 하나로 부각되었다. 또한 당시 정조(正祖)와 우의정 이병모(李秉模, 1742~1806) 등 재상들은 최홍원의 향약을 인재관리 및 사창법의 실시 측면에서 성공적 사례로<sup>6)</sup> 평가하였다. 100여년이 넘게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향약이고 조선후기 향약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 것이다.

최홍원의 향약은 5대조인 대암(臺巖) 최동집(崔東集, 1586~1661)의 것을

6) 『정조실록』, 권48, 22년 무오 6월 3일. 우의정 이병모와 사창법 시행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서 “사창의 법은 고 상(相) 최흥원(崔興源)이 일찍이 영남에 시행했다고 합니다.”라며 칭송했다고 한다.

이어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입향조 대암공은 만아들만 남기고 나머지 자식을 모두 외지로 분가해 내보냈다고 한다. 심지어 묘지도 마을 주변에 널린 산에 쓰지 않고 멀리 뚝으로써 광역경영의 의지를 더욱 굳건히 하였다. 그 결과 구한말까지만 해도 옷골 마을에는 종가 그리고 그에 딸린 노비들이 거주하는 가람 집들만 있는 특이한 마을이었다. 옷골 마을에서는 마을을 최소화하여 베이스캠프로 삼고 그것을 중심으로 넓은 지역에 자손들을 배치해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매우 특이한 영역확장 전략이 전개되었던 것이다.<sup>7)</sup>

여기서 말하는 규범은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개인, 문중과 향촌인을 규율하거나 자율적으로 따르도록 유도하는 행동양식에 대한 일종의 기준 또는 규칙이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유교의 규범에 철저한 행동에 의해 조상의 위세를 과시하고 신분적 우월감을 강화시키는 한 방법으로 보고 동성조직의 형성조건으로 규범 또는 도덕적 품격을 중요한 평가의 기준으로 기능하거나, 또한 규범은 공동의 가치를 반영하며 자기집단의 문화를 습득하고 사회체제의 기능에 공헌한다고 볼 수 있다.<sup>8)</sup>

최홍원은 선대(先代)의 ‘무가(武家)에서 문가(文家)로 전환’하며 가격(家格)을 올리는 과정에서 가문의 병폐, 즉 협기(俠氣)와 패술(覇術)과 미생지신(尾生之信)과 같은 맹목적인 신념을 고치고 지행합일의 가풍을 만들려 노력한 것 같다. 이런 맥락에서 수신(修身) 부문 6종과 제가(齊家) 부문 4종[효제당명·가훈·전사설·입춘첩]의 규범을 철저히 정착시키고 유교적 가치체계에 의한 칠계낙토(漆溪樂土)를 만들려 노력한 것을 알 수 있다.<sup>9)</sup> 그리고 이러한 유가적 이상사회를 부인동에서 실현하고자 향약을 마련했던 것이다.

7) 한필원, 『한국의 전통마을을 가다』, 북로드, 2007, 31~32쪽 참조.

8) 최인돈, 「백불암의 修身·齊家 관련 규범에 대하여」, 『유학연구』 21, 충남대 유학연구소, 2010, 51-52쪽 참조.

9) 최인돈, 위의 논문, 79쪽 참조.



〈사진 1〉 농연서당과 부인동동약공전비

최흥원이 부인동에 향약을 설치하고 시행하게 되는 것은 그 5대조 대암 최동집이 은거한 곳이자 문중 소유의 토지가 많은 곳이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강 정구의 문하에서 학문의 요체를 배우고 당대의 명유와 교류했던 최동집은 경학으로 대군사부가 되었지만 중국의 명나라가 멸망하고 청나라가 들어섬에 따라 승정처사로 팔공산에 들어가 은거하게 되었다. 그는 은거하는 가운데 이곳 마을에 향약을 설치하고 시행함으로써 향촌민들을 교화해 나가고자 하였는데, 다만 당시의 명칭은 동약이나 향약이 아니라 ‘동계완의(洞楔完議)’였다고<sup>10)</sup> 한다. 그의 5세손인 최흥원은 이 같은 대암 최동집 선조의 은거지에 관심이 많았으며 주자학의 윤리도덕에 의거하여 사회질서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최흥원이 자신이 세거하고 있는 옷골이 아닌 부인동에 향약을 설치한 또 다른 이유는 당시 옷골에는 종택과 이를 지원하는 하층민들만 거주하고 있

10) 김용섭, 「조선후기의 대구 부인동동약과 사회문제」, 『동방학지』 46,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5, 134-135쪽 참조.

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옷골 자체가 좁은 골짜기여서 많은 집을 짓기 어려웠기 때문이기도 하며, 종가를 보전하고 재력을 집중하면서 장기간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했다고 한다.<sup>11)</sup> 또한 대암 선조의 유훈을 이어받고 새로운 정치적 실험을 시도하고자 했던 최흥원의 적극적인 실천적 의지가 발현된 결과이기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1745년 부인동 강사가 설립되기 전까지 최동집이 세운 농연서당을 기반으로 향약을 실시했던 것이다.



<사진 2> 소산 이광정이 기록한 「부인동강사기」 편액(부인동강사 대청에 계판)

최흥원은 이러한 목표를 두 가지 계통으로 수행하고 있었는데, 그 하나는 경주최씨 문중을 중심으로 한 동족 내의 질서확립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향촌의 사회질서를 확립하는 문제였다. 전자를 위해서는 효를 강조함으로써 이를 실현하려 하고, 후자를 위해서는 유교적 윤리도덕으로 실천함으로써 이를 달성하려 하였다.<sup>12)</sup> 그리고 이를 실천하고 완성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최씨 문중을 일으켜 세울 여러 규약을 마련하기도 하고, 향촌 주민을 계도할 제 규약을 선대의 유훈이 남아있는 부인동에 향약의 형태로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1) 최진돈(남, 72세) 증손의 제보(2018.11.14).

12) 김용섭, 앞의 논문, 135쪽 참조.

“약중(約中)에 상하 사람들과 후손들이 오늘에 마음으로써 마음으로 삼고 명분을 되돌아보고 의리를 생각하며, 일심으로 봉공하고 감히 사리사욕에 빠지지 않는다면, 거의 집에선 훌륭한 자식이 될 것이며, 나라에서는 선량한 백성이 될 것이다. 불연(不然)이면, 윤리에 어긋난 자식과 간악한 백성이 되는 것을 면치 못할 것이니, 각자가 힘써야 될 것인저!”<sup>13)</sup>

사족(士族) 중심의 동계(洞契)는 임란(壬亂)을 경과하면서 민중의 각성으로 사족 중심의 조직에 하층민이 그 직접적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이른바 동약(洞約)으로 전환되었다. 특히 주리적 퇴계학과 중에도 주리학파인 이상정과 절친했던 최홍원의 향약은 퇴계 계통 중에서 가장 잘 정비된 향약이다. 부인동 향약 조직의 독특한 내용은 선공고(先公庫)와 홀빈고(恤貧庫)의 설치였다. 선공에서는 공세의 납부를, 홀빈에서는 구휼과 장상부조를 담당하였으며, 선공의 공세란 토지의 전세를 말하며, 균역과 잡세는 제외되어 있었다.

선공고와 홀빈고는 향약민의 경제생활, 조세부담을 지원하는 기구였다. 이 시기에는 부세제도의 불합리로 동민이 받는 피해가 컸다. 최홍원은 향약민의 언론을 봉쇄하고 신분변동을 억제하는 가운데 질서를 유지하려 하였지만,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들의 경제생활이 안정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선공고를 통해서 해결하려 하였다. 이는 식리(殖利) 활동을 하는 계였다. 한편으로는 급채취식(給債取息)함으로써 자산을 늘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100여 두락의 先公田(水田)을 설치함으로써 그 수입을 늘려 나갔다. 급채취식의 원칙은 특히 주자의 사창법(社倉法)을 표본으로 삼았다.<sup>14)</sup>

선공고의 수익은 토지에 부과되는 부세에 대한 공동납으로 사용되었으며, 최씨 일가와 부유한 농민층에게는 큰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었지만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불공평한 제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불

13) 서수생, 「역서 및 해제」, 『국역 백불암선생문집』, 경주최씨 칠계과 중증, 2002, 16쪽, 「부인동공전비문」(1765, 영조41년).

14) 김용섭, 앞의 논문, 140쪽 참조.

만이 고조되어 가자 최홍원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홀빈고를 설치하고 땅이 없는 농민에게 약간의 농지를 매급함으로써 그들도 세역 부담의 혜택을 받도록 조치하였다. 하지만 향약민에 대한 수혜가 공평하기는 어려웠다. 더욱이 상민층만이 담당하는 군역세는 선공고 부담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었다. 그것은 최홍원의 피역 및 신분변동에 대한 보수적인 자세로 보아 당연하였다. 결국 선공고와 홀빈고는 당초의 의도와 별개로 신분과 빈부를 전제 한 위에서 운영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토지를 소유한 양반과 부농 위주로 운영되는 기구로서의 한계, 즉 문중 가업과 규범의 확장지로서 부인동 경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Ⅲ. 역중일기를 통해본 조선후기 향약의 실상

조선시대 재지사족으로 향촌에 자리 잡은 유학자들은 『예기(禮記)』 <예운편(禮運篇)>에 기록되어 있는 ‘대동(大同)’ 사회를 꿈꾸었다. 문치교화(文治教化), 즉 덕으로 자치를 이루는 완전한 이상적 시공간을 만들고자 하였던 것이다. 대동사회의 이상향을 건설하기 위해 각 지역의 유학자들은 자신이 거주하거나 경영하는 마을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모색하였다. 향약 등 자치규범을 마련하여 공의에 따른 질서를 만들어냈고 상민들과 조화를 이루고자 노력했다. 대동론은 초기 조세부담과 군역의 효율적 감당을 목표로 했지만, 점차 향촌 정치의 일환이자 문화적 연대기구로서 유교공동체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구지역 부인동 향약은 부재지주(不在地主)였던 최홍원이 동민들과 상의하여 선대 최동집로부터 전해 내려오던 동계(洞契)를 이어받아 더욱 공고히 하면서 원격적인 대동사회의 실험이자 실천의 시공간으로서 공을 들였음을 알 수 있다. 최홍원은 향약의 물적 기반을 갖추기 위해 선공고와 홀빈고를 설치하여, 선공고에서는 전세(田稅)를 대납하였고 홀빈고를 통해서도 땅이 없는 농민들에게 토지를 지

급하는 한층 발전된 형태의 향약을 기획하고 실천하였다. 최흥원이 기록으로 남긴 『역중일기』에는 당시 향약을 시행하던 장면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어 당시 사회의 시대적 요구를 담아낸 흔적이 뚜렷하게 드러난다.<sup>15)</sup>



〈사진 3〉 『역중일기』 전 4권 표지

따라서 역중일기를 통해서 살펴본 이번 연구는 조선후기 향약의 구체적 실상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성과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작업은 향후 ‘이념형(이상형)’(ideal type)으로 전해온 조선후기 향약의 전승양상과 후대의 변화양상을 아울러 살펴볼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1. 부인동 향약의 설치 관련 일기

향약과 관련한 역중일기 주요 기사를 통해 부인동 향약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를 살펴보자. 먼저 부인동 향약을 시작하는 모습을 일기자료로<sup>16)</sup> 확인해보자.

15) 조정현, 「소통하는 유교문화 콘텐츠 모색」, 『민족문화연구』 81,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8, 628-629쪽 참조.

16)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국역 일기자료는 한국국학진흥원 국역 사업에서 이루어진 미발간 자료를 활용한 것임을 밝혀둔다.

부인동夫仁洞 색장色掌(소임을 맡은 사람)이 와서 아뢰기에 동약규洞約規를 써서 보냈다.(1738년 12월 20일)

부인동夫仁洞 사람들이 모두 와서 인사하였다. 담당 임원들도 왔다. 사환使喚이 나를 ‘주약존主約尊’의 직임이라고 하였는데, 가소로웠다. 나는 동약洞約의 규정을 세우기 위하여 종지宗旨에 자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내일 아침 일찍 일제히 모이도록 알려주었다.(1739년 2월 25일)

일찍이 아침을 먹고 洞舍에 나와서 동네사람들로 하여금 東·西로 나누어 뜰 밑에 앉게 하였다. 먼저 書記를 정해서 『藍田呂氏鄉約』을 베끼게 한 후 이를 대략 수정하여 洞約으로 삼았다. 일가 사람 崔慶淳을 洞約直으로 세우고 하인 중에서 裊自雲을 洞約所 里正으로 삼았으며 朴信特을 洞約所 典穀으로 임명하였다. 그런 후에 約條를 諺文으로 해석하게 하여 하인들에게 그 내용을 설명해주고 ‘옛 것을 개혁하고 새것을 따르라[革舊從新]’는 뜻을 거듭 깨우쳐 주니 마을사람들이 모두 엎드려서 들은 후에 “감히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날이 저물게 되어 행사를 마쳤는데, 書記는 朴鳳來이다.(1739년 2월 26일)

밥을 먹은 뒤에 이정里正 배자운裊自雲, 전곡典穀 박신태朴信特이 와서 아뢰기에, 동약洞約 법규의 뜻을 엄격하게 세우고 다시 거듭하여 타일렀다. 동네에 남아 있는 곡식을 전곡에게 담당하도록 하였다.(1739년 2월 27일)

위 일기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부인동 향약은 남전여씨향약을 근간으로 하여 수정된 것임을 알 수 있고, 최씨 일가에서 향약 운영자의 직임을 맡고 상민 층에서 이정과 전곡을 맡도록 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문으로 된 향약을 하층민들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언문으로 번역하여 잘 설명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는 사실도 확인되며, 옛것을 혁신하여 새로운 마을공동체의 운영을 실시하게 되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정과 전곡을 따로 교육시킴으로써 원격경영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했고, 마을 공유자원으로서 곡식을 전곡이 관리하도록 지시했음을 알 수 있다.

## 2. 부인동 향약과 관아가 연계되어 운영되었음을 보여주는 일기 자료

다음으로 부인동 향약과 관련하여 관아에 보고하거나 판정을 받은 일에 대한 자료이다.

부인동夫仁洞 동약절목洞約節目과 좌목座目에 관아에서 인장을 찍어 왔다.(1741년 4월 2일)

아침을 먹은 뒤에 강회를 열었다. 동네 사내 임봉래林鳳來 외삼촌의 아내가 소지所志를 작성하였는데, 그의 조카 김만갑金萬甲의 불효하고 불순한 죄를 고하였다. 이 일은 강상綱常(삼강오상)과 관련이 있어서 사유를 갖추어 관아에 보고하도록 하고, 아울러 동약책洞約冊을 제출하게 하였다. (1750년 10월 14일)

아이 사진을<sup>17)</sup> 보내어 고을 수령에게 세의歲儀를<sup>18)</sup> 뉘도록 하고, 그 참에 동약절목洞約節目에 관인官印을 찍어 달라고 요청하도록 하였다.(1754년 1월 7일)

초저녁에 아이 사진이 부중府中에서 돌아왔다. 계안稷案과 절목節目에 과연 관인을 받아왔다. 고을 수령이, “의창義倉이란 이름을 쓰지 않아서 흠이나 이러한 뜻은 또한 좋다.”고 말하였다 한다. 연일 수령이 들를 뜻이 있다고 하였으나 어찌 반드시 그렇게 하겠는가.(1754년 1월 8일)

부인동 사내들을 모아서 박세룡이 윗사람을 범한 죄로 관아에 보고하기로 의논하였다. 세룡이 그의 산성 일터에서 달려와 땅에 엎드려 온갖 이유를 대며 애걸복걸하였다. 이에 관아에 보고하는 일은 멈추게 하고 부인동 향약소 이정을 시켜 태썩 10도도를 치게 하였다.(1770년 10월 18일)

관아와 관련한 위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향약에 대한 인

17) 최홍원의 조카 이름.

18) 한 해를 보내면서 연말에 서로 주고받는 선물을 말한다.

증을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절목이 변경, 추가될 때마다 인증을 받았고, 향약 주민이 죄를 지었을 때 그 경중에 따라 자체적으로 징벌하거나 관아로 넘기는 판단을 해서 처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관인을 처리해주며 수령이 ‘의창’이란 용어를 썼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하는 대목에서는 관아의 관심이 드러나기도 한다. 또한 마지막 자료는 관아의 힘을 빌려 죄를 지은 주민을 압박하면서 자체적인 형벌을 가하는 자치의 양상을 잘 보여준다.

### 3. 선공고와 홀빈고의 운영 양상

다음으로 부인동 향약에서 특징적으로 수행한 선공고와 홀빈고의 운용양상과 관련된 일기 자료를 살펴보자.

동약소의 사내들이 모두 일찍 모였다. 날씨가 추워서 강회는 하지 못하고 단지 올해부터 시작하여 공고公庫에 별도로 전곡典穀을 두어 그가 동약소의 사람으로 작부作夫<sup>19</sup>를 선택하도록 지시하였다.(1746년 11월 9일)

동약소洞約所에서 선공고先公庫에 곡식 1백 50섬을 납부하였다고 한다.(1754년 9월 28일)

부인동夫仁洞 고목告目<sup>20</sup>이 왔다. 동네의 곡식을 나누어 주라고 허락하였다.(1756년 1월 21일)

동약소의 작부作夫가 불과 너덧 밖에 안 되는 것 같고 거둔 곡식도 겨우 2백 섬이어서 이것으로 장리長利를 주어도 공목公木<sup>21</sup>에 보태기에 부족한

---

19) 결세(結稅)를 거두어들이는 방법의 하나로서 토지 8결을 1부(夫)로 계산하여 역가(役價)를 징수하던 단위이다. 이는 세금 납부 주체를 동약소의 회원으로 세운다는 의미이다.

20) 각 관청의 서리(書吏)나 지방 관아의 향리(鄉吏) 같은 하급 관리가 상급 관리에게 공적인 일을 보고하거나 문안(問安)할 때 사용하는 간단한 양식의 문서이다. 여기서는 부인동(夫仁洞) 동약소(洞約所)에서 최홍원에게 올린 고목을 말한다.

21) 일본 사신이 가지고 온 개인 상품에 공식 무역을 허가하여 대가(代價)로 내주던 무명

것 같았다.(1758년 11월 10일)

부인동 동약소 이정里正 박세룡朴世龍이 진실하지 못하고 궤약하여 교체 시키고 이금세李今世를 대신 뽑았다. 그리고 부인동 동약소를 손질하고 홀빈고恤貧庫를 설치하는 일을 분부하였다. 그러나 윗자리에 있으면서 내 언행을 바르게 하여 남을 인도하고 거느리지 못하니 어찌하고 어찌하겠는가.(1770년 윤5월 15일)

밤에 종지 할아버지와 신녕 할아버지, 사수 아재 및 부인동 동약소 이정 이금세·오득재吳得才 등을 모아서 땅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다시 향약 규정을 고쳐 논을 사서 골고루 구제하는 일로 분부하였다. 모두 즐거워하는 뜻이 있었다.(1770년 윤 5월 22일)

위의 일기 자료에서는 선공고와 홀빈고의 실제적인 운용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선공고에 별도로 전곡을 두고 그가 직접 농사를 지을 작부를 선정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향약의 하급 임원에 게도 일정한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효과적인 운영의 묘를 살리고자 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향약을 실시한 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인 1770년 경에 구체적인 홀빈고 설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알 수 있고, 향약 규정을 고쳐 땅이 없는 농민들을 구제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만족했음도 알 수 있다.

#### 4. 부인동 향약에 대한 다양한 평가

다음으로 향약의 효과와 대동적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일기 자료를 살펴보자.

부인동夫仁洞 동약소洞約所에서 보낸 고목告目を 받아보았다. 기양禱禳<sup>22)</sup>을 행하라고 요청한 일이었다. 축문을 작성하여 보내고, 벼 3섬을 허락하

---

을 말한다. 공목의 재원은 전세(田稅)에서 충당하였다.

였다.(1750년 1월 20일)

동네 어른과 젊은이들이 일제히 모였다. 강회가 끝나고 선공고先公庫의 곡물을 따로 떼놓고, 관원에게 요청하여 소 한 마리를 하루 잔치에 이바지하도록 허락을 받았다. 또 다소간의 술과 음식이 있어서 동네 사람들이 모두 취하고 배불리 먹으면서 환호를 하였으니, 이것이 동약洞約의 효과이다.(1755년 11월 9일)

부인동夫仁洞 동약洞約 강시講舍에 올라가니, 동약의 노소 사내들이 대부분 모여 있었다. 떡과 과일을 내게 올리고, 이어서 봄 사이에 공고公庫의 법에 크게 의지하여 관아의 견책을 면하였고 또 굶주리지 않을 수 있었으며, 농사 작황도 웃을 만하다며 사례하였다. 공고의 전곡典穀을 박세룡朴世龍으로 바꾸었다.(1763년 6월 5일)

아침 전에 부인동夫仁洞 동회에 가서 참석하였다. 좌정한 뒤에 이정里正 배자운裴自雲이 동네의 효열孝烈 및 불효不孝·불인不嫻<sup>23)</sup>을 각각 장부에 적어 올려서 곧바로 동약洞約에 따라 상과 벌을 주었다. 이어서 동약 여덟 조목을 강론한 뒤에 술을 돌리고 마쳤다.(1763년 9월 9일)

마을 주민들이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는 기양 행사를 하고자 할 때 최흥원이 직접 축문을 써주고 쌀까지 내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는 부인동 향약이 지배층 주도의 조직에서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주장하고 조정해나가는 자치조직으로서 마을공동체의 위상을 갖추어나가고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또한 강회를 할 때 소를 잡고, 술과 음식을 대접하는 장면이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어 하나의 유교공동체로서 향약의 성격을 드러내며 대동사회의 이상을 추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역중일기에서도 나타나듯이 동회 석상에서 술에 취하여 실수를 할 경우에

22) 재앙은 물러가고 복이 오라고 비는 일로, 정월에 시행하는 것으로 볼 때 지신밟기 등이 결합된 동제일 것으로 판단된다.

23) 성(姓)이 다른 친척 간에 화목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대한 벌조罰條가 여러 마을의 동계 규약에 나타나는 것도, 역으로 해석하면 그만큼 동계 총회는 동민이 어울리는 흥겨운 자리임을 짐작할 수 있다. 다른 지역의 사례로,<sup>24)</sup> 경상도 예천군 맛질의 동회(洞會)는 상하(上下)가 함께 모이면서도 그 자체로 하나의 요란스러운 축제가 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부인동과 같이 신분적 위계질서를 안정시키는 문화 기제였음을 알 수 있다.

최홍원의 『역중일기』에는 대동을 기치 아래 소를 잡고 잔치를 하며 마을 사람 모두가 더불어 즐기는 장면이 제시된다. 대동사회의 실험지로서 부인동에서 마을 사람들이 잔치를 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즐기는 모습이야말로 향약[洞約]을 시행하고 함께 꾸러가는 효과라고 만족해한다. 이러한 양상은 최홍원이 기대했던 대동사회의 도구로서 향약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상하의 질서를 안정적으로 지속하는 메카니즘이 되기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5. 향약에 임하는 최홍원의 정서와 태도

다음으로 향약을 시작하고 운용하는 가운데 어떤 생각과 판단을 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최홍원이 향약에 대해 어떠한 자세를 취했는지를 알아보자.

부인동夫仁洞 동약소 이정里正의 고목이 왔기에 강회講會를 22일로 정하여 제사題辭를 써서 보냈다.(1743년 9월 11일)

동약洞約의 강신講信<sup>25)</sup>을 보기 위하여 병을 참고 갔다.(1744년 3월 9일)

종지宗旨 할아버지 집에서 아침밥을 먹고 나와서 동회洞會에 참석하였다. 동약 조문에 따라 징계하고 권장하였다. 약직約直 최경순崔慶淳을 체임하고

24) 이영훈, 「18-19세기 대저리의 신분구성과 자치질서」, 안병직·이영훈 편, 『맛질의 농민들』, 일조각, 2001, 271쪽.

25) 향약(鄉約)이나 계(契) 등의 성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술을 마시며 우의와 신의를 새롭게 다짐하고 대화하는 것을 말한다.

서도윤徐道允을 후임으로 뽑았다. 오계선吳戒善을 전곡典穀으로 삼고, 이정  
里正은 그대로 맡겼다.(1744년 9월 9일)

아침을 일찍 먹고 강회를 열어 동약洞約 조목에 따라 경고하고 벌을 주었  
다. 동약과 관아의 제사를 좌중에서 읽고 그들로 하여금 듣고 이해하도록 하  
였다. 부득이 만갑萬甲이라는 자가 죄상을 갖춘 보장을 가지고 관아에 보고하  
게 되었는데, 이때 임봉래가 애걸하고, 또한 그가 그의 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선 그의 장래를 보아서 다만 그의 큰 어머니가 그를 다스리도록 하였  
다.(1750년 10월 17일)

아침을 일찍 먹고 강회를 열었다. 임봉래林鳳來가 동네 사내들에게 섞이고  
싫지 않아서 해안 서부에 피신하여 거주한다고 하였으나 차마 경솔하게 벌을  
줄 수 없어서 급히 불러 나무라고 강회에 참석하여 앞으로의 일을 지켜보도록  
하였다.(1750년 10월 27일)

부인동 전곡典穀과 색장色掌 두 명이 다시 와서, 동네 사람들이 이미 와서  
기다린다고 말하기에 어쩔 수 없이 쇠약한 망아지를 타고 길을 나서서 저물녘  
에야 비로소 당도하니, 과연 동민 등이 모여 기다리고 있었다. 곧바로 강회는  
생략하고 마련해 놓은 떡과 국을 대접하게 하였다.(1760년 10월 27일)

가뭇과 무더위가 한결같이 성하여 농부의 바람이 위태롭게 되었다. 동약洞  
約을 의논하여 처리할 일이 있어 동사洞舍에 들어가니 동네 사내 10여 명이  
와 모여서 나를 맞이하였다. 이금세李今世를 공전公田 전곡典穀으로 삼고서  
개를 삶고 닭을 잡았다. 이는 아주 긴요하지 않은 일인데도 애초에 헤아려서  
급하게 하지 못하였으니 한이 되었다.(1760년 5월 13일)

부인동 동약의 이정里正 등이 와 인사를 하였고, 종지 할아버지도 보러왔  
다. 내일 동약 모임에 음식을 대접하고 위로하기로 약속하였다. 오시 경에 강  
당에 들어갔다. 밤에 이정 이금세李今世가 술에 취하여 실수한 듯하였으나  
우선 다스리지는 않았다.(1767년 12월 12일)

밥을 먹은 뒤에 부인동 사람이 다 모였다. 그런데 이정이 또 술주정을 부릴

조짐이 있어서 내보내고 정아지鄭阿只로 대신 뽑았다. 자리를 정리한 한 뒤에 다만 고기만 먹고 술은 차리지 않았다.(1767년 12월 13일)

홍록을 보내 중심 조제고에서 걸벼 20섬을 내어 부인동에 주는 일을 감독 하게 하였다.(1771년 3월 24일)

위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최홍원은 개인적 병환이나 사정이 있을 때에도 부인동 주민들의 적극적인 요구나 상황이 있을 시에는 가능한 향약에 참가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최홍원은, 때로는 하층민에 대한 연민과 애정으로 다가가기도 하지만 원칙적인 입장에 서야 할 때는 분명하게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마지막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최씨 문중의 봉제사 기금이라 할 수 있는 조제고에서 부인동에 곡식을 지원하는 모습은 최홍원의 부인동 향약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을 잘 드러내고 있다.

## 6. 향약의 갈등양상과 주체들의 대응

이제 최홍원이 부인동 향약을 수행해나가면서 발생하게 되었던 그들의 측면으로서 갈등양상과 주민들의 대응양상을 살펴보자.

부인동夫仁洞 동약 이정洞約里正 배자운裴自雲이 문득 반묘反苗의 욕을 당하였다. 그가 임무를 성실하고 정직하게 맡아서 사람들의 원망을 많이 샀기 때문에 이런 뜻밖의 환난을 당하여 사임단자를 올려서 체임을 청하게 되었으니, 가소롭다. 체임을 청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뜻으로 제사題辭를 써주었다. 또한 각 마을로 하여금 반묘한 자를 조사해내어 고할 것을 분부하여 돌려보냈다.(1739년 4월 26일)

아침을 일찍 먹은 뒤에 동사洞舍에 갔다. 온 대청마루의 동약인洞約人이 고한 내용은, 동네 사내 이신금李信今이 동약정洞約正인 이정里正을 업신여긴 죄를 시험 삼아 벌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어서 북계에서 밥을 가

저다 먹고 강사講舍에서 유숙하였다.(1757년 4월 25일) 아침을 일찍 먹은 뒤에 이정 무리들에게 이신금에게 매를 치도록 하였다.(1757년 4월 26일)

부인동夫人洞에서 고목告目이 와 미친놈 김세우金世右 덕창德昌을 다스리도록 요청하여 바로 제사를 써서 보냈다.(1758년 12월 8일)

갑자기 부인동 동약소의 고목을 받아 보았는데, 지난밤에 선공고先公庫의 걸며 3석을 잃어버렸다고 한다.(1764년 3월 30일)

위 자료에서는 부인동 향약을 실행하는 주민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최흥원의 선택을 받은 부인동 향약 임원과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이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어 백불암의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마지막 자료에서는 전후맥락을 명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공유자원으로서 선공고의 걸며 3석이 분실되는 사건까지 일어나고 있는 갈등양상이 첨예화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중 나징懶澄이 와서 자반[佐飯]<sup>26)</sup>을 바쳤다. 동약소洞約所 세찬歲饌 물건이 왔다. 이는 틀림없이 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어서일 것이다. 동네 사람 남녀 중 나이가 칠십 이상인 사람에게 청어 1지枝를 주어 노인을 우대하는 뜻을 표시하였다.(1750 12월 26일)

오계선吳繼善과 배세화裴世華가 청량미靑梁米를 얻어다 주었다. 마음이 편치 않다.(1756년 5월 16일)

사촌 아우가 어제 돌아와 부인동 동약 강회를 잘 치렀다고 하였다. 오늘 동네 사람들이 와 내게 인사를 하고 문서를 마감한 뒤에, 과일과 찬구饌具를 갖추어 바쳤다. 한 소반은 어머니에게, 또 한 소반은 여러 아우에게 바친 것이다.(1764 11월 6일)

---

26) 자반[佐飯] : 나물이나 해산물 따위에 간장이나 참쌀 풀 따위의 양념을 발라 말린 것을 곁거나 기름에 지져서 만든 입맛을 돋우는 반찬이다.

부인동夫仁洞 동약소洞約所 사람들이 와서 인사를 하고서 정성을 다하여 상여를 메겠다고 청하기에 허락하였다. 그들에게 미리 와서 연습하라고 시켰다.(1766년 1월 6일) 부인동 동약소 사람들이 과연 일찍 당도해 연습을 행하여 일사분란하게 명을 따랐다. 소방상과 대방상을 잘 만들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았다.(1766년 1월 8일)

부인동夫仁洞 향약 주민 10여 명이 소장을 가지고 왔기에 만나보니, “저희들의 결복結卜을 公田에 함께 넣어 주고, 조세의 감면을 작부作夫가 함께 받게 해 달라”는 뜻으로 내게 간곡히 요청하였으나 의리에 있어 편안하지가 않아 끝내 허락 안 해 주고 좋은 말로 제사題辭하여 돌려보냈다.(1759년 1월 6일)

부인동 향약 임원 사내들이 와 인사를 하고 부세夫稅를 일체 방납防納으로 하자고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1768년 3월 6일)

위 자료에서는 부인동 향약을 실행하고 있는 주민들의 최흥원에 대한 존모와 원망이 교차하는 장면이 드러나고 있다. 부인동 마을을 좀더 질서화되고 안정적인 공동체로 이끌어준 선비적 인물이라는 존경심으로 세찬과 선물 등을 바치거나, 최씨 문중의 상장례에 적극 봉사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지만 최씨 일족과 부유한 농민들에게 편중되는 선공고의 혜택을 부인동 주민 전체에게 달라고 하는 지점에서는 끝내 허락하지 않는 모습도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일기 기사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부재지주이자 향약의 기획자였던 최흥원은 부인동에 대한 일관된 원칙과 애정, 책임감을 가지고 부인동 향약을 운영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최흥원의 입장과 주민들의 요구, 현실적 신분질서의 유지와 주민들에게 내면화된 대동사회의 꿈, 생계 문제와 결부되는 구체적인 제도에 대한 최흥원의 기준과 주민들의 만족도가 빚어내는 간극 등은 당시 향약이 풀어내기 힘들었던 한계점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간극의 상호작용 속에서 긴장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부인동 향약이 유지되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일기 자료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특징적인 부분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여러 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구두로 지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반드시 문서로 남겨 고목을 받고 제사를 써주는 방식으로 기록하고 공식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는 사실, 둘째, 마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과 관아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부분을 정확히 구분했고 관아와 긴밀하게 연동하여 운영했다는 사실, 셋째, 향약의 임원에 대한 세심한 관리를 통해 부인동 향약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했다는 사실, 넷째, 향약의 기획자이자 실행자로서 최흥원에 대한 존모와 원망의 중의적 감성, 신분질서 및 체제 유지와 주민에게 내면화된 대동사회의 이상 간의 모순적 인식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 IV. 마을공동체 운영의 전통과 변화양상

최흥원의 향약은 유가적 대동사회의 명분 외에도 공동납(共同納)에 대응하는 것을 실제적인 기능으로 하여 출발하였다. 여러 자료에서 나타나 있듯이 향약은 공동체적 자기규제와 주민복리 지원의 기능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조세부담에 대한 측면보다 마을 내부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며 동제(洞祭)를 중심으로 공동체 행사와 관련된 지출이 정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마을 단위 향약은 외부의 압력인 부세(賦稅)에 공동으로 대응하려는 목적과 문중의 규범을 확대재생산하는 과정에서 출발했지만, 그 과정에서 대동사회를 지향하는 공동체적 결속을 강화시켜 나간 생활철학이자 규범이었다고 볼 수 있다.



<사진 4> 부인동강사 전경(2018년 11월 현재)

부인동강사는 “삼가오랑의 목조와가로서 왼쪽과 오른쪽은 방이고 중간 두 칸은 마루인데 방 앞에는 각각 툇마루가 있다. 1739년 실학자 최홍원 선생이 부인동향약을 시행하면서 오계선, 배자운, 구선록, 김일해 공과 의논하여 선공고와 홀빈고를 만들어 동민의 생활



<사진 5> 부인동강당 안내판

을 안정시킨 후 동민들의 교육을 위하여 1745년에 이 건물을 지었다. 지금도 매년 3월에 다섯 문중 후손들이 이곳에서 선조들의 아름다운 뜻을 기려

향사를 지내고 있다.”<sup>27)</sup> 부인동 강사는 무려 250여년의 세월 동안 부인동 주민들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다. 최흥원의 향약 운영은 19세기 마감되었지만 또다른 형태로 현재까지 향약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셈이다.

부인동강사 내부에 걸려 있는 현판에는 ‘강사창계좌목’으로 최흥원, 吳繼善, 裴自雲, 具善錄, 金一海 등 5명의 이름을 새겨두고 있다. 부인동 향약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이 5인에 대해 부인동에서는 현재까지도 향사를 올리고 있다.<sup>28)</sup> 증가, 사우, 서원 등의 불천위제사나 향사처럼 영세무궁토록 제사를 받아드시는 조상으로 사족과 양민들을 함께 모셨다는 사실에서 부인동 향약의 특성이 잘 드러난다. 2018년 올해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전통으로, 매년 음력 3월 17일 부인동강사 창건일에 맞춰 백불암 증가 종손과 4개 성씨 후손들이 함께 향사를 올리고 있는 것이다. 또한 백불암 증가의 종손 장례 때에 부인동 주민들이 꽃상여를 만들어 옷골로 보내는 전통이 40여년 전까지, 즉 현 최진돈 종손의 조부 때까지 유지되었던 점<sup>29)</sup> 주목할 만하다.



<사진 6> 부인동강사 대청에 걸려있는 ‘강사창계좌목’ 현판

동계가 마을의 공동체적 운영을 강화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27) ‘부인동강당’ 안내판 설명글(사진 3 참조).

28) 구자해(남, 83세) 씨의 제보(2018.11.14).

29) 최진돈(남, 72세) 종손의 제보(2018.11.14).

또 하나의 측면은 식리를 통한 복지사업과 동유기물(洞有器物)을 운영하는 것이다. 부인동의 식리와 동유기물은 차일(遮日), 교자(轎子), 병풍(屏風) 등 혼상구(婚喪具)가 주를 이루며,<sup>30)</sup> 『역중일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향약 설립 초기부터 동중에서 공동의 토지와 공유자원을 구비하고 전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재(公共財)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또한 실생활 측면에서도 조선후기 계의 이자율에 관한 일련의 연구성과를 낸 김재호에 의하면, 조선시대 이자율은 사실상 연 50%를 웃도는 수준이었던 반면, 계 이자율은 일반 이자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리이고 이자율의 진폭이 안정된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계기금에 접근할 수 있었던 자는 그렇지 못한 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계의 구성원인가의 여부가 소농경영의 안정성 면에서 중요한 요건이 되었다.<sup>31)</sup>

부인동의 사례와 같이 향약의 운영 측면에서 성씨와 신분의 차이를 넘어 다수 동민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에서도 향약의 개방성이 나타난다. 더구나 향약이 초기의 단계를 벗어나면서부터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요구가 나타나게 되고, 후대에 들어서는 최흥원과 함께 4개 성씨 대표가 부인동강사의 신위로 모셔지는 점 등을 보면, 향약의 신분지배적 성격을 약화시키게 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일기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사족 중심 향약의 핵심적인 특성 중 하나인 하민에 대한 통제기능이 점차 약화되면서 향약이 폐지되고 자치적인 총회 체계로 변환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렇듯 조선사회에서 유교는 수기치인의 덕목을 지켜나가면서 마을공동체와 향촌사회를 기반으로 자신들의 이상향으로서 대동세계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향약에서 크게 네 가지 범주로 진행되었는데, 첫째는 이념적 기반으로서 대동사회의 이상을 실현하고 문치교화를 이루고자 하는 유학적 덕목, 둘째, 여러 성씨들이 거미줄과 같은 다양한 사회자본을 구성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 기반, 셋째, 중앙정부의 정책적 강제에도 흔들

30) 김갑선(여, 89세) 주민의 제보(2018.11.14).

31) 김재호, 『농촌사회의 信用과 契 : 1853~1934』, 안병직·이영훈 편, 『맛질의 농민들』, 일조각, 2001.

리지 않는 향약의 세부규약과 같은 자치적 제도 기반, 넷째, 부인동의 선공고, 홀빈고 등의 사례와 같은 물적 기반 등이다. 이 네 가지 요소가 효율적으로 융합되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때 선비들이 꿈꾸던 이상사회가 가능했음을 알 수 있다.

전통적인 향약은 신분제를 기반으로 운영되었으나, 일제시기에는 신분제 대신에 국가에 대한 충성, 관에 대한 복종 등이 강조되었다. 동족마을에서의 동족관념은 동향의식으로 바꾸고, 조상숭배 관념은 선별하여 국가에 대한 봉사, 신사에 대한 문제와 연결시키려는 의도였다. 또한 동족 내 향약의 엄격한 상하질서에서 비롯된 유순한 마음을 이용하여 국가에 순종하게 하려고 하였던 것이다.<sup>32)</sup> 즉, 일제의 통치 목적을 위한 시행 사항을 향약 단체의 규약으로 뭉으로써 일제 농촌 정책에 대한 조선 농촌민의 반발을 완화시키고 규약의 시행을 통해 조선의 말단까지 지배력을 관철시키려 했던 것이다.<sup>33)</sup>

지금까지의 조선후기 사회사 연구에 의하면, 동계는 재지사족 중심의 향촌 지배기구이며 사족지배체제가 해체되는 18세기 이후에는 그 역사적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일제시기 조사자료에서도 동계는 동리 단위의 공공사업이나 촌락자치를 위한 조직으로 대단히 광범하게 존재한다고 파악되었으며,<sup>34)</sup> 일제의 농촌지배정책 연구에서도 동계류 조직이 식민지기에 광범하게 존재하던 촌락 단위의 자치기구임을 밝히고 있다.

동계는 사족지배체제의 산물로서 사족중심의 향촌통제를 목적으로 형성되었으며, 유력한 반촌(班村)이나 문중이 중심이 되어 주변의 몇 개 촌락을 아우르는 방식으로 행해졌다. 그러나 18세기 이후에는 동리 단위의 공동납(共同納)이 행해지면서 동리의 결속과 동리간의 세력 조정이 향촌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재지사족의 지역 장악력이 약화되어, 사족중심의 동계에 포섭되어 있던 하민(下民)들의 저항 속에서 광범하게 분동(分洞)이 이루어진다.

32) 주영하·남근우·임경택, 『제국 일본이 그린 조선민속』,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35쪽.

33) 한미라, 「1930년대 조선총독부의 향약 장려 정책」, 『역사와 실학』 60, 역사실학회, 2016, 130쪽 참조.

34) 善生永助, 『朝鮮の契』, 朝鮮總督府, 1926.

그리하여 18-19세기에 들어와 기존의 동계는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거나 그 성격이 변질된다. 즉, 동계는 양반만의 상호부조적인 조직으로 한정되거나 관(官)의 수취체계의 하부구조로 재편되어 그 역사적 의미를 상실한다.<sup>35)</sup>

결국 향약은 점차 사족층의 향촌지배기구 또는 신분지배조직의 성격에서 벗어나 촌락 단위의 생활공동체적 성격의 동계로 그 성격이 전화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조선후기 향약이 형해화되면서 역사적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촌락 단위의 자치조직’으로 재정립되었음을 의미한다. 부인동 향약 역시 이러한 과정을 겪어온 것으로 파악되지만 특징적인 전통이 남게 되었는데, 바로 향약을 이끌어온 최흥원과 4개 성씨 대표 조상에 대한 향사를 현재까지도 지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 V. 결론

『국역 백불암선생문집』의 해제를 쓴 서수생은 “이것이 선부후교(先富後教)였으며, 관자가 말하는 ‘창륜실즉지예절(倉廩實則知禮節)’과 서로 통하는 것이요, 부인동약(夫仁洞約)은 조선조 후기 사회에 등장한 일종의 새마을 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sup>36)</sup> 하였다. 사족들의 기반이 약한 지역에서의 향약 실시는 구호에 그쳤을 가능성이 크며, 향교나 서원, 사우의 활동을 통해 사족들이 조직화되고 이러한 기구를 중심으로 향약이 실시되어 간 지역(또는 시기-주로 17, 18세기)에서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기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 시기가 내려올수록 소규모 향약인 동약, 동계가 출현하여 보다 세분된 단위에서 사족에 의한 직접적인 대민지배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상하합계(上下合契)가 나타나고 이것이 더욱 진전되면 19세기에는 ‘분동 요

35) 이해준, 『조선시기 촌락사회사』, 민족문화사, 1996 ; 정진영, 『조선시대 향촌사회사』, 한길사, 1997.

36) 서수생, 「역서 및 해제」, 『국역 백불암선생문집』, 경주최씨 칠계과 종중, 2002, 17쪽.

구'와 같이 하계가 독립해(혹은 떨어져) 나간다.<sup>37)</sup>

『역증일기』는 최홍원이 1727년부터 1786년까지 약 60년 동안 기록한 전형적인 생활일기이다. 이 일기에는 하루의 간지와 일기 상태를 비롯하여 농사 형편, 교유 관계, 유람 일정, 질병과 이를 대처하는 자세, 사회적 모순과 부조리에 대한 반성적 표출, 부인동 향약, 종중의 대소사 등 조선후기 사대부의 일상사가 사실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역증일기』를 통해 부인동 향약이 문중의 규범으로부터 시작되었다가 확대재생산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마을공동체에서 향약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구현되었는지 밝히고자 하며,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향약 운영의 현재까지의 변화양상과 영향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최홍원이 기획하고 실행한 향약은 역사적인 면에서나 문화사적 측면에서도 유의미한 진전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홍원이 1738년(영조 14)부터 부인동에서 실시한 향약은 그의 실천적 학문을 구체화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같은 향약을 범부의 효도와는 다른 대효(大孝)의 실천으로 이해하기도 하였고, 인의(仁義)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당시 사회는 개혁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었고 가장 절실한 변화는 민생에 있었음을 최홍원은 옳곧게 인식하고 실천하였던 셈이다.

부재지주이자 향약의 기획자였던 최홍원은 부인동에 대한 일관된 원칙과 애정, 책임감을 가지고 부인동 향약을 운영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특징적인 부분으로 꼽을 수 있는 점은, 첫째, 여러 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구두로 지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반드시 문서로 남겨 고목을 받고 제사를 써주는 방식으로 기록하고 공식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는 사실, 둘째, 마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과 관아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부분을 정확히 구분했고 관아와 긴밀하게 연동하여 운영했다는 사실, 셋째, 향약의 임원에 대한 세심한 관리를 통해 부인동 향약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했다

---

37) 정승모, 「조선시대 향촌사회의 변동과 농민조직」, 『역사민속학』 1, 한국역사민속학회, 1991, 51-52쪽 참조.

는 사실, 넷째, 향약의 기획자이자 실행자로서 최홍원에 대한 존모와 원망의 중의적 감정, 신분질서 및 체제 유지와 주민에게 내면화된 대동사회의 이상간의 모순적 인식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 이 논문은 2018년 11월 16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8년 11월 19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8년 12월 11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禮記』, 禮運篇.

『夫仁洞誌』

『국역 백불암선생문집』(2002)

『曆中日記』

善生永助, 『朝鮮の契』, 朝鮮總督府, 1926.

金仁杰, 「조선후기 향권의 추이와 지배층동향」, 『한국문화』 2,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981.

김용섭, 「조선후기의 대구 부인동동약과 사회문제」, 『동방학지』 46,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5.

김재호, 「농촌사회의 信用과 契 : 1853~1934」, 안병직·이영훈 편, 『맛질의 농민들』, 일조각, 2001.

오용원, 「최흥원의 역중일기를 통해 본 영남선비의 일상」, 『대동한문학』 45, 대동한문학회, 2015.

이영훈, 「18·19세기 대저리의 신분구성과 자치질서」, 안병직·이영훈 편, 『맛질의 농민들』, 일조각, 2001.

이재철, 「백불암 최흥원의 시대와 그의 현실대응」, 『한국의 철학』 29, 경북대 퇴계학연구소, 2001.

이해준, 『조선시기 촌락사회사』, 민족문화사, 1996.

장윤수, 「백불암 최흥원의 학풍과 실천지향적 삶」, 『한국학논집』 58,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2015.

정승모, 「조선시대 향촌사회의 변동과 농민조직」, 『역사민속학』 1, 한국역사민속학회, 1991.

정진영, 「백불암 최흥원의 학문과 향약」, 『한국의 철학』 29, 경북대 퇴계학연구소, 2001.

鄭震英, 「朝鮮後期 鄉約의 一 研究-夫仁洞 洞約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2.3합집,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1982.

정진영, 『조선시대 향촌사회사』, 한길사, 1998.

- 조정현, 「소통하는 유교문화 콘텐츠 모색」, 『민족문화연구』 81, 고려대 민족문화 연구원, 2018
- 주영하·남근우·임경택, 『제국 일본이 그린 조선민속』,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 최언돈, 「백불암의 <부인동동약>과 관련된 향촌 규범에 대한 연구」, 『동북아 문화연구』 23,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0.
- 최언돈, 「백불암의 修身齊家 관련 규범에 대하여」, 『유학연구』 21, 충남대 유학 연구소, 2010.
- 한미라, 「1930년대 조선총독부의 향약 장려 정책」, 『역사와 실학』 60, 역사실학회, 2016.
- 한필원, 『한국의 전통마을을 가다』, 북로드, 2007.

## *Hyangyak* of the Latter *Chosun* Dynasty and Management of Village Community on Viewing *Yeokjoongilgi*

Cho, Jung-hyun

In this article how the Village associations, that is *Hyangyak*(鄉約), operated in the latter period of the *Chosun* Dynasty, is examined. It seems that they came to serve as autonomous entities inside natural villages, and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y had once served under the leadership of *Sajok*(士族) figures as a device of ruling local communities, it can be said that they departed from their previous status quite considerably. In order to corroborate that, the case that is surveyed in this article is the *Buindong*(夫仁洞) Village association, which existed in the *Chilguk-gun*(漆谷郡) area, inside the *Gyeongsangbuk-do*(慶尙北道) province. The *Yeokjoongilgi*[『曆中日記』, Diary book written by Baekbulam(百弗庵) Choiheongwon(崔興遠, 1705~1786)], which shows us the activities and operations of the association in question in chronological order, is dominantly consulted in this research.

This article suggests further studies on comparison of these norms and those of some other confucian scholars in the *Chosun* Dynasty viewed from the diary(『曆中日記』) and his social aspect. Studies on whether his teaching could be recognized as one of the leading sects

in the *Silhak*(實學) school seem to be worthwhile, because adoption of combined private farming and public farming system, introducing *Sungonggo*(先公庫) and *Hyulbingo*(恤貧庫), and considering practical and pragmatic points in education appeared to be unusual ideas for the times. The fact that all these diverse factors were taken into account in institutionalizing the norms is worthy of note.

**key words :**

Baekbulam(百弗庵) Choiheongwon(崔興遠), *Yeokjoonilgi*(『曆中日記』),  
Buindong(夫仁洞), Hyangyak(鄉約), Dongyak(洞約),  
remote management, village community

